

## 에콰도르의 ‘이중성(dual identity)’: 중국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 경제적 역설(paradox)\*

이 태 혁\*\*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태혁(2016), 「에콰도르의 ‘이중성(dual identity)’: 중국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경제적 역설(paradox)」,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173-194.

**초 록** 본 논문은 개발의 (국제)정치경제의 담론을 살펴봄, 에콰도르 현 좌파 정부상황하의 아마존지역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개발의 정치경제는 ‘변화와 지속성 (change and continuity)’의 반복이다. 특히, 이 담론의 시작은 식민지 시대와 궤를 같이 한다 (Michael 2012).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하자원과 관련된 개발의 종속적인 단면이 내재화 되어있고, 이에 대해 21세기 좌파 정부 등장하 경제적 재분배와 신자유주의 하 배제된 이들(예, 원주민 등 소수자)의 정치경제적 포용(inclusiveness)을 천명했다. 즉, 신채굴주의(new extractivism) 형태로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궤레아 정부의 석유채굴 정책과정을 통해 이중적(dual identity)인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2007년 에콰도르 궤레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Yasuni ITT Initiative 를 국제사회에 공언했지만, 이내 2013년 현 정부는 이 전략적 ‘카드’를 내려 놓게된다. 그리고 그 ‘출구’ 전략으로 중국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에콰도르의 개발의 정치경제적 정책이 중국의 등장으로 종속적인 면이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 에콰도르 정부의 정치경제적 역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핵심어** 신채굴주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이중성, 야수니 ITT 이니시에티브, 에콰도르, 중국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E-mail:yorkveritas@bufs.ac.kr

## I. 서론

2015년 세계 10대 뉴스 중 하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관련된 전 지구적 이슈이다(Newsweek, 2015. 12. 28.). 즉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기후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범세계적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2015년 파리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는 ‘파리 기후협약’<sup>1)</sup>안을 채택하며, 산업혁명 이후 인류문명을 이끈 동력이었던 화석연료<sup>2)</sup>의 퇴출을 의미하는 역사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계 195개국 대표단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파리가 장소에,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등장한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케추아족의 한 리더는 “우리는 아마존 정글을 보호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라고 전 세계에 전하고자 파리에 왔다”고(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며, 아마존정글 지역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mazon Watch).

자연의 보고(寶庫)인 아마존 지역, 특히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신 기후변화체제의 글로벌 합의가 이뤄진 작금, 석유지대 국가(oil rentier state)<sup>3)</sup>인 에콰도르가 아마존개발, 특히 석유개발과 얽힌 현 좌파정부의 정치경제적 역설(paradox)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즉, 본 논문은 신채굴주의(new extractivism)<sup>4)</sup> 형태로써 꼬레아 현 정부가 주장하는 후기 신자유주의적(post-neoliberal)<sup>5)</sup> 국가의 모습이 진정성 있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연구 조사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에콰도르 개

1)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면서 실효성 논란만 키웠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

2)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의 매장량 가운데 특히, 중남미가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9.4% 보유하고 있다(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3) 토착자원을 외부인에게 지대로 제공함으로써 세입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을 얻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을 지칭한다.

4)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5)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발의 정치경제 과정 가운데 중국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서는 외부 행위자(external actor)인 중국의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출현으로 라파엘 꼬레아 현 좌파정부의 ‘좌파’적 정책의 한계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의 정치변동, 특히 라파엘 꼬레아 정부등장 이후의 일련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김달관(2011; 2012), 김달관, 조영현(2012)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시작과 전개를 문화인류학적 역사학적 접근 통해 시도했다. 특히 김기현(2011)은 페루와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 석유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연구로 에콰도르 국내 사회적 이슈를 분석했다. 더욱이 중국의 개입과 둘러싼 에콰도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쉬이 찾아 볼 수 없다. 2016년도에도 에콰도르에 대한 연구를 Latin American Perspective 43호에 실은 바 있는 베커(Becker 2016)는 실질적으로 지난 20여년 이상 에콰도르 원주민의 사회적 운동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베커(Becker 2016)는 사회적 운동의 원인의 변수를 역사적, 제도적인 측면의 내재적 요소에 접근해 오고 있다. 마침내 에콰도르라는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에스κρι바노(Escribano 2013)가 연구한 바 있다. 상기의 기존 연구는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사회적으로 순응 및 대응한 영역에 대한 논문들로써, 에콰도르 국가 연구에 귀한 자료물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꼬레아 정부의 ‘환경적 쿠데타’로 치부될 수 있는 Yasuni-ITT<sup>6)</sup>안의 철회에 따른 에콰도르 국내적 그리고 국외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역사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인 만큼, 이 사건(event)과 결부된 ‘실타레’를 개발의 정치경제 담론이라는 프레임으로 풀어보며, 현 에콰도르 좌파 정부의 개발의 정책적 결정에 중국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본다.

이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개발의 정치경제 담론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특히 에콰도르 아마존지역개발의 정치경제 발전

6) Yasuni ITT: 이스핑고(Ishpingo)-팜보코차(Tambococha)-띠뿌띠니(Tiputini).

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구현한다. 제 3장에서는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 정부의 등장과 이에 따른 아마존지역 개발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4장에서는 21세기, 특히 2006년 꼬레아 정부출현과 궤를 같이 하며 에콰도르에 '적극적' 등장하게 된 중국의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에 대한 역할에 대해 조명하도록 한다. 덧붙여 이 장에서는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진 종족 및 지역 단위의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INGO)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행위자들의 정치 사회적 '반작용'의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서 논의 한 바에 대한 정리와 함께 본 논문의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구의 영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 II. 개발의 정치경제 담론 프레임

개발의 정치경제의 담론의 시작은 식민지 시대와 궤를 같이한다(McMichael 2012). 즉 유럽의 제국 및 팽창주의일환으로 식민지의 확대와 이에 따른 식민지 국가들로부터의 1차 광물 유입 그리고 2차 상품들을 식민지 국가 등에 수출하며, 유럽은 강한 국가 재건(strong state building)을 추구한다. 이렇듯 식민지 확보 및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은 정치적인 이유, 즉 강한 국가의 존립이다. 경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tool)<sup>7)</sup>라는 중상주의(mercantilism)의 등장이다. 중상주의는 공존, 협업을 지양한다. 즉,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보다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추구하며, 생존에 관심을 갖는다. 힘, 생존, 즉 강한 국가를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며, 그곳에서 채굴된 각종 지하자원, 동시에 재생산된 물품들의 수출대상국으로써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자본발달이다(Veltmeyer 2013).

7) 정치(힘)의 논리에 대한 강조는, 국제정치학 이론 가운데 현실주의(realism)에 이론적 뿌리를 제공한다. 현실주의도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등으로 현실주의 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국가라는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존(survival)을 주요(primary) 목표로 설정한다.

한편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시는 이러한 유럽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찬양했다. 영국 소설가이자 시인인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은 이 시를 통해 제국주의적 정치경제 행태에 정당성을 찬양한 것이다 (McMichael 2012). 백인들은 미개한 지역 및 미개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계몽과 발전을 주도하는, 고결한 일(noble task)을 해야 하는 ‘짐(burden)’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이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범적(normative) 차원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은 중남미 등 식민지 국가에서의 채굴(extractivism) 행태를 통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시점부터 중남미 등 식민지 국가들은 수탈의 대상 지역이었으며, 역사적 맥락 가운데 종속의 패러다임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임마누엘 윌러스타인은 계급(class)간의 차이로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칼 막스의 이론을 국제적 단위(international level)로 끌어 올려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구조를 분석했다(세계체제이론).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1940-50년대 라울 프레비쉬(Raul Prebisch)가 중남미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종속이론(path dependent theory)을 설파하게 된다. 즉, 국제경제에서의 1차 산업(광물자원)의 수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 III. 개발의 정치경제

중상주의 이론, 세계체제 이론, 종속이론 등은 자본주의화 진행되어 가는 세계경제의 패턴을 식민지, 특히 1차 자원광물 채굴이라는 공통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 등이 자국의 산업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변국(식민지국 포함)에서의 지하자원 채굴활동을 하는 채굴주의(extractivism), 혹은 이를 채굴제국주의(extractive imperialism)(Veltmeyer 2014)라고 명명한다. 제3세계국가, 특히 중남미가 1980년대 초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통해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패턴의 개발의 정치경제로 편입

에 이른다. 즉, 앞서 잠시 언급한 종속이론의 설파로 인해 중남미의 산업화가 (지역단위) 보호무역주의와 수입대체산업화로 60년대 이후 진행되지만, 국제적 환경(예, 오일파동, 미국이자율 상승) 및 국내적 문제(예, 정치의 불안정성, 과도한 외자도입 등)로 인해 실패로 귀결하게 된다.<sup>8)</sup>

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처방전과 함께 중남미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정치경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에콰도르도 예외가 아니다. 또 다른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대중들은 민주주의의 정치수단인 종이 돌맹이(paper stone), 즉 투표용지를 통해 의사당 발코니 안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좌파 정권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의 대척점(대안)인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 정책, 즉 사회통합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단순히 국가의 재등장으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과 수출경제정책을 정부의 주도하 진행하는 것이다(Grugel and Ruggirozzi 2012, 2-3). 이 정책은 국가 개발의 정치경제의 과정 가운데 사회적 포용(함)(social inclusiveness)을 천명한 것으로, 사회와 국가 가운데서의 새로운 형태의 합의(pact)를 이루며, 지역민들의 전통과 그네들의 필요에 응답(response) 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다.

이런 가운데 로저 메리노 아꾸냐(Roger Merino Acuña 2011)가 지적한 것처럼,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신헌법을 제정하며 국민국가(nation state)에서 다민족 국가(plurinational state)로의 변화를 천명했다. 이는 지역(community) 단위의 자치권 인정, 인디언들의 정치참여 독려, 환경 등 자연보호 등을 전면에 제시하며 헌법을 개정했다. 특히 라파엘 꼬레아 좌파정권하 2008년 개정된 에콰도르 헌법 10조엔 자연권(rights of nature)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신자유주

8) 중남미의 경제발전 이행과정에서의 수입대체형 산업화(ISI)에 대한 실패의 낙인이 찍혀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수출주도형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의 경제발전 모델을 통해 동아시아의 기적을 일궈냈다. 이에 대해, 피터 에반스(Peter Evans)는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발전을 ISI와 EOI로 양분화 시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라고 주장한다.

의하(여전히)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며 채굴(extractivism)이 강행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표방한 것이다. 에콰도르의 헌법, 특히 자연권과 관련되어선 다음 섹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개발의 정치경제, 특히 앞서 제시한 이론(theory) 및 논의들 가운데서 중남미에 공통으로 투영되는 영역은 자원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식민유산인 자원개발, 21세기 민주주의적으로 정권을 탈환한 좌파정치 세력은 신채굴주의(new extractivism)를 주창하며, 자원개발을 정권유지를 위한 ‘총알(bullet)’로 사용한다. 특히 신채굴주의 경제는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통한 1차 산업형태(primary commodity form)로의 수출로써, 자원지대(resource rents) 혹은 자원의 국유화 등을 통해 자원의 부(wealth)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추구를 통한 보편적 사회정책 모델이다(Veltmeyer 2013, 82; 김달관 2013, 6).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제기한 바대로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하 진행되고 있는 신채굴주의 경제가 진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즉 좌파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가? 개발의 정치경제, 특히 중남미는 식민유산인 자원개발이 구조적 모순의 시발점인 가운데 중남미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내에 깊숙이 내재화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중국과 같은 외부행위자(자원개발의 투자자겸 자원의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좌파정권이 추구하는 포스트 신자유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채굴산업 경제, 특히 석유산업에 기댄(dependent) 에콰도르는 꼬레아 좌파 정부가 2006년도 정권창출을 통해 인디언 등 원주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코자 등장했다, 앞서 잠시 언급한 2007년도 신헌법을 통과시키며 자연과 인간의 삶의 조화를 주장하지만, 이내 그 한계성을 아마존지역 개발정책을 통해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과정과 이에 따른 아마존 개발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에콰도르 좌파정부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한계성을 분석한다.

#### IV. 좌파정부의 등장과 원주민 운동 그리고 아마존 개발정책

라파엘 꼬레아 좌파 정부의 등장은 에콰도르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 에콰도르 원주민운동 출현 그리고 그 운동의 정점엔, 1990년대 불안정한 정치경제를 종식시킨 2006년도 좌파정부의 등장이다. 특히 김달관(2012; 2013)이 지적한 바대로, 90년대 중반이후의 원주민 운동이 토지투쟁에 중점을 둔 ‘농민적’ 성격의 운동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로의 무게의 축이 변화된 ‘종족적’ 성격의 운동이다. 이는 원주민운동이 대항해계모니(counter-hegemony)의 중심으로써 1997-2005년 사이의 3명의 대통령 탄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행위자(actor) 그룹이다. 즉 1997년 압달라 부카람 퇴진, 2000년 하밀 마우아드 퇴진, 그리고 2005년 루시오 구티에레스의 퇴진까지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정권의 수장이 강제 해임되는 사태에 원주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운동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999-2000년 은행위기로 경제 쇠퇴 및 빈곤 증가로, 중국엔 IMF 구조조정 일환으로 달러를 에콰도르 자국의 화폐로 채택한 신자유주의적 조치는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다(원영수 2015).

특히 라파엘 꼬레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루시오 구티에레스 정부는 2002년 대선당시 원주민의 지지로 승리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의 정책의 선회 및 대법원 판사임명 스캔들 등과 맞물려, 구티에레스는 민중운동을 주도한 원주민 운동단체인 ‘에콰도르 원주민 연합(CONAIE)’의 지지로 당선돼 에콰도르의 차베스라고 불렸지만, 중국엔 2005년 민중들의 저항으로 축출 당했다(원영수 2015).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 환경 가운데 정치적 좌파 이념의 스펙트럼을 ‘장착’한 라파엘 꼬레아는 조국동맹(Movimiento Alianza PAIS)을 결성하며 민중들의 지지를 업고 2006년 키토의 대통령궁으로 입성하게 된다.

꼬레아 정부의 정치적 정체성(identity)과 그 뿌리는 민중이다. 특히 원주민 운동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꼬레아 정권이 원주민들의 이익을 대변코자 했다. 이에 2007년 9월 헌법개혁을 위한 제헌의회가 소집되었고, 2008년 신헌법이

통과됨으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김달관(2011)이 지적한 것처럼, 신헌법 전문에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녹아들어간 내용들이 신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신헌법 전문은 “다양한 부족의 여성과 남성 국민들에 의해 형성된 수천 년의 역사를 인정하면서”<sup>9)</sup>라고 서두에 시작하는데, 이는 “에콰도르의 정통성을 에콰도르 원주민의 역사에서 이어받은 것으로써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김달관 2011, 22)에 신헌법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신헌법 전문 둘째 문단엔 파차마마(자연의 모 mother of the Earth),<sup>10)</sup> 그리고 신헌법 일곱 번째 전문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sup>11)</sup>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신헌법 전반에 투영된 것으로써, 파차마마의 의미인 자연의 중요와 조화 그리고 수막 카우사이는 좋은 삶(buen vivir)으로 문자 그대로(literary)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통합과 조화로운 관계”(김달관 2011, 14)를 강조한다. 헌법 조항 총 444조 가운데 수막 카우사이와 직간접적으로 내용 등을 포함해 관련조항이 161항에 이르고(김달관 2012, 189), 수막 카우사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신헌법 전반에 걸쳐 2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Leon, 105). 에콰도르 신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정당성이 함축적이고 또 응축적으로 결집된 2008년 신헌법에 원주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면에 밝히고 있다는 것은, 에콰도르의 새로운 대안은 원주민 그리고 자연이다. 대지(자연)와 이 대지에서 조화롭게 삶을 영위한 인디언들이 지난 500년(half-millennium)이상 배제당하고 수탈된 역사에, 역사적 정의를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신헌법을 제정한 꼬레아 정부의 정신이고 철학인 것이다.

특히 본 신헌법에는 세계최초로 자연권(rights of nature)을 헌법 제 7장에

- 
- 9) 2008년 신헌법 전문 첫째 문단, “RECONOCIENDO nuestra raíces milenarias, forjadas por mujeres y hombres de distintos pueblos” 라고 밝히고 있다.  
 10) 2008년 신헌법 전문 둘째 문단, “CELEBRANDO a la naturaleza, la Pacha Mama, de la que somos parte y que es vital para nuestra existencia”.  
 11) 2008년 신헌법 전문 일곱 번째 문단, “Una nueva forma de convivencia ciudadana, en diversidad y armonía con la naturaleza, para alcanzar el buen vivir, el sumak kawsay”.

명시하고 있다. 노벨상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올바른 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의 수상자이자 생태운동에 투신한 활동가인, 인도 출신의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sup>12)</sup>는 에콰도르 FLACSO에서 주관하는 학회에 참석해(2010. 11. 26.) 자연권이 헌법상에 명시함에 단순히 일개 국가의 역사적 중요성을 넘어 세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 밝힌다. 즉 시바는 지난 500년간의 식민주의 그리고 발전이라는 명목하의 또 다시 50년간의 신 식민주의 그리고 10-20년간의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또 다시 자행되고 있는 식민주의행태에, 자연권이 헌법상의 설정은 역사적 분기점(historical juncture)이라고 주장한다(Shiva, 164). 이는 에콰도르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격상시키면서 권리의 역사에 새장을 연 것으로써, 인간 중심적 권리인 인권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조영현 · 김달관 2012, 143). 즉 자연과 인간의 공생, 융화 그리고 조화이다.

이렇듯 자연 그리고 인간, 특히 원주민에 대한 권리옹호에 적극적인 꼬레아 정부, 자연과 원주민의 공통분모라 볼 수 있는 아마존지역,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정책에 이중적인 모습(dual identity)이 보인다. 먼저 다국적 기업인 쉘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의 아마존 열대우림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 석유시추과정에서 환경 및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소송에 에콰도르 정부의 대응은 신헌법 제 7장 72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자연은 복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13)</sup> 에콰도르 우파 정권시 발생한 텍사코 유전개발 폐해에 대해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 지역 원주민들이 지난 1993년 최초 제기한 소송이 꼬레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12) 그녀의 대표적인 도서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2003), 『물전쟁』(2003), 『테라 마드레』(2009) 등이 있다.

13) 헌법 7장 72조의 명시된 내용, “La naturaleza tiene derecho a la restauracion. Esta restauracion sera independiente de la obligacion que tienen el Estado[...]En los casos de impacto ambiental grave[...]el Estado establecera los mecanismos mas eficaces para alcanzar la restauracion [...]”.

되었으며, 소송 제기 한지 20여년 만인 2011년에 에콰도르 법원에서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sup>14)</sup> 2013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95억 1천만 달러로 지불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에콰도르 좌파 정부의 자연환경, 그리고 자국민 인권 보호차원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이며, 또한 Public Citizen, Amazon Watch 그리고 Rainforest Action Network 등 국제환경단체인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여론몰이에도 한 몫을 한 것이다(강병근 2015, 164). 이는 에콰도르라는 국가단위와 국제사회, 특히 국제 비정부기구(INGO)라는 국제적 행위자와의 공동 노력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 케이스가 된 것이다.<sup>15)</sup>

자연권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의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있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회원국으로써 원유(Crude Petroleum)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대에 육박한 2007년도<sup>16)17)</sup>에 돌연 꼬레아 정부는 야수니 공원내 에콰도르의 최고 원유매장지인 이스핑고(Ishpingo)-팜보코차(Tambococha)-띠뿌띠니(Tiputini), 즉 Yasuni-ITT 지역의 석유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환경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Yasuni-ITT initiative를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포했다. 꼬레아는 아래 전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총회에서 Yasuni-ITT initiative를 제안하며 환경보전의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했다.

14) 텍사코는 1967년부터 1992년 사이 라고 아그리오 지역에 1000여개의 유해물질 구덩이를 남겼으며, 유독성 폐기물과 원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내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5) 국내에 국한되어 성장한 기업들이, 생산이득(예, 값싼 노동력 등)과 수출 대상국의 접근적 편리성 그리고 환경 유해 시설에 대한 법적규제 등의 이유로 타국가로 그 생산망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공장들의 이전 등을 통해 제조 및 영업 거점화 시키는 다국적 기업들의 반환경, 반생태적 횡포가 만연하다.

16) MIT대학의 <http://atlas.media.mit.edu/en/profile/country/ecu/> 에서 관련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17) 2007년도는 에콰도르 석유산업에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1992년 50억불이상의 채무로 인해 OPEC회원 중지가 된 에콰도르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인 2007년도 OPEC 회원으로 복귀한 해이기도 하다(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17 March 2015).

국가수입원의 1/3이, 석유채굴 산업인 본국에서,  
인류의 안녕과 공정한 문명(fair civilization)을 위해  
이 수입원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에콰도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희생(enormous sacrifices)을 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전문 가운데서)

Friends of the Earth라는 국제환경단체에 따르면 야수니 국립공원은 1989년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 곳으로, 야수니 ITT지역엔 에콰도르의 전체 석유 매장량의 20%정도인 약 9억 2천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Alier 2007, 4227; Martin 2011, 22).

석유 등 자원수출에 기댄(dependent) 에콰도르 무역수출수익 구조상 ‘커다란(great)’ 변혁이었으며, 또한 모험이었다. 포스트 석유문명을 향한(towards a post-oil civilization)을 뜻하는 야수나이즈(yasunize), 야수니제이션(yasunization)이라는 신종어가 파생했을 정도로 화석연료의 대표인 석유를 땅속에 ‘놓아둠’으로써 세계를 ‘야수니화’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늦추고 자원전쟁을 예방하며 그리고 자원개발의 지속적 종속관계 등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여겨졌다(Temper and others 2013). 원주민 표심과 관련된 꼬레아 정부의 재집권이라는 국내정치적 이해관계, 남미의 약소국<sup>18)</sup>이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전지구적이슈의 적극적 ‘응답자’라는 국제정치적 위상을 차지하더라도, 또한 ITT 지역의 석유가 경질유(Light Crude Oil)가 아닌 중질유(Heavy Crude Oil)로 인해 석유채굴이 경제적이기 못할 것이라는 전망(Alier 2007, 4227)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꼬레아 정부의 결정은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생태환경보호라는 전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 시대적 사명

18) (천오백만의 인구, 프랑스의 절반가량의 면적, 그리고 그 면적의 절반정도가 아마존 지역) ‘남’이라는 집단화.

에 적극적 순응한 것이다. 해외언론 등에서는 라파엘 꼬레아의 Yasuni ITT Initiative에 대해 제3의 길, 혹은 패러다임 쉬프트라며 극찬을 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좌절시켰다(the world has failed us)’고 Yasuni ITT Initiative를 제안을 철회하며, 2013년 8월 15일부 꼬레아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decree) 74호에 서명함으로써 ITT initiative의 포기를 공식화했다(Hill 2013; Valencia 2013). 이유는? 2020년까지 유전개발 시 예상되는 원유 시장가격의 50%수준인 36억 달러의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당시 6여 년간 마련된 기금은 목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3억 3000만 달러가 약속되었고, 실질적으로 0.13억 달러만 모금이 되었다. 꼬레아 정부는 기금이 정상적으로 모금이 된다면 10억 달러 상당의 부채 감축으로 일부소진하고, 야수니지역 보호 및 타 지역의 사회 환경적 투자 그리고 대체에너지 등의 발전을 위해 사용코자 했었다(Alier 2007, 4228). 그리고 야수니 ITT 이니시에티브 거버넌스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간섭으로 인해 꼬레아 정부가 중국엔 ITT 이니시에티브라는 전략적 ‘카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출구’전략으로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

## V. 에콰도르(야수니 ITT 지역)에 ‘보이는(visible)’ 중국의 손(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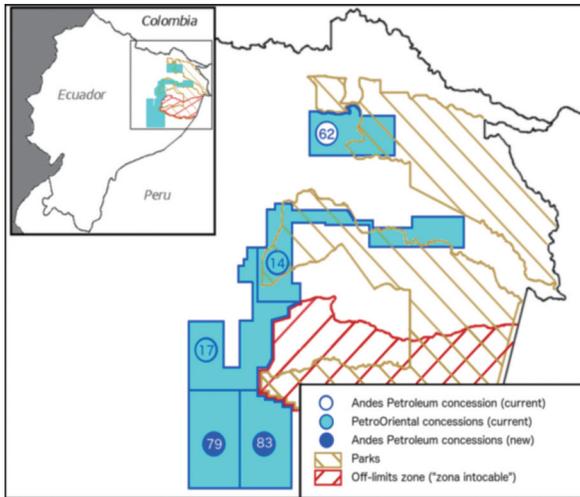
에콰도르에서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FDI) 50%이상이 중국발 자본이며 이 가운데 광물자원, 특히 석유 등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Gallagher and Myers 2015). 특히 지난 2010-2015년 사이 중국의 대 중남미 투자국 가운데 에콰도르가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이어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4번째 대상국이다. 더욱이 에콰도르가 중남미 타 국가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작은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 에콰도르 투자는 지극히 전략적이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중국 ‘바라기’가 양상은 실질적으로 라파엘 꼬레아 정부의 집권과 그 궤를 같이한다. 중국자본은 2006년 중국국영 정유회사인 CNPC와 Sinopec이 Andes Petroleum과 PetrOriental이라는 현지화한 법인을 통해

〈표 1〉 중국의 대 중남미 투자액(2010-2015)

국가	투자액(US Dollar)
베네수엘라	65 billion
브라질	21.8 billion
아르헨티나	15.3 billion
<b>에콰도르</b>	<b>15.2 billion</b>
트리니다드 이 토바고	2.6 billion
볼리비아	1.6 billion
자메이카	1.5 billion
멕시코	1 billion
코스타리카	395 million
바르바도스	170 million
가이아나	130 million
바하마스	99 million
페루	50 million

Gallagher, Kevin P. and Margaret Myers 2015.



〈그림 1〉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내 중국 자본하 석유 채굴(양허)권 이행 정도(Ray and Chimienti 201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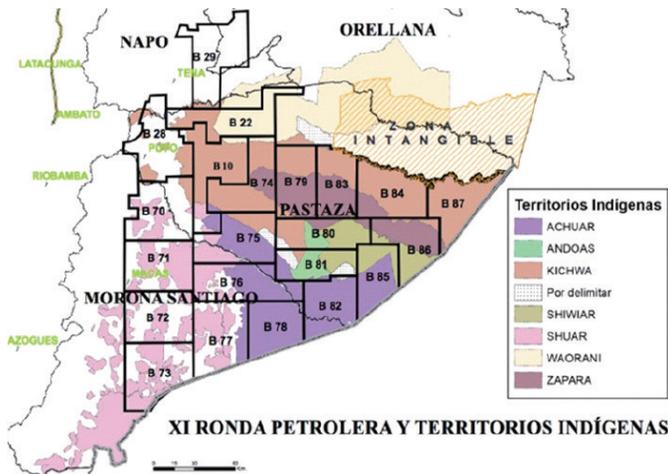
캐나다 정유회사, Encanda의 에콰도르 석유채굴지불권을 구입(Ray and Chimienti 2015) 하면서 에콰도르 아마존이 중국자본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그림 1>에서 보듯 중국 국영 정유회사들(Andes Petroleum, PetroOriental)

이 에콰도르 아마존내 전방위적 채굴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철회된 Yasuni ITT Initiative 안이 중국엔 이(근방)지역에 대한 채굴권이 중국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디언(2014) 등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질적 Yasuni ITT 지역에 대한 채굴권은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인 Petroamazonas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개발에 대해 중국의 자본(\$1 billion)이 유입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중국의 Yasuni 지역에 석유 채굴권에 대한 일련의 정황 등이 2016년 1월 26일 현실화 되었다. 에콰도르 정부는 상기 <그림 1>에서 보듯, 79와 83블록에 대한 채굴권을 중국자본의 현지화 석유기업인 Andes Petroleum에게 양도했다(Amazon Watch, 2016. 01. 26). 특히 이 지역은 아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apara와 Kichwa 아마존 원주민들의 거주지와 중복(overlap)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Sapara는 UNESCO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종족수가 300여명이다. 에콰도르 정부가 석유개발지역 확보 및 확대를 위해 북부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김기현 2011, 34), 이는 에콰도르 헌법상 보호를 명시한 자발적 고립(voluntary



<그림 2> 아마존 지역 석유 채굴지역과 원주민 거주영토(지) 도식(beforeitsnews.com)

isolation) 지역의 대상인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태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원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post-extractivism 형태인 포용적 개발(inclusiveness development)보다는,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등을 배척(exclusiveness)하는 이중적(dual identity)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대로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원주민들이 자국의 바운더리를 넘어, 국제사회에 아마존 지역 석유개발의 무분별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그림 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아마존 위치라는 국제환경단체 등과 함께 아마존 원주민들이 서로 공조하여 중국 등의 자본유입에 따른 사회적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사회적 여론몰이 및 참여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8년 개정 헌법이 이전 헌법과 구별됨은 자연 그리고 원주민의 중요성을 그 전면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상기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 에콰도르 정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마존 야수니 ITT 지역에 대한 중국 측 석유채굴권 양허 등에 대해 야수니 지역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 등과 관련해 ‘자유로우며, 사전에 그리고 적절한 상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ultation: FPIC)’가 선행되도록 헌법 4장 57조항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현 좌파 정권의 정책에 분개하며 국내외 ‘거리’로 나오고 있다.

베커(Becker 2013)는 에콰도르 현 좌파 정권을 가리켜 “자신들의 목숨이 위



<그림 3> (amazonwatch.org)

해가 되는 것도 무릅쓰고 사회운동을 진행한 수많은 이들의 희망과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더욱 보수적인 색채로, 배제되었던 집단이나 소수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부유한 자본가들의 이권에 부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49)고 꼬레아 정부의 개발의 정치경제적 이중적 작태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에콰도르 좌파 정부의 정치경제적 역설이 아마존지역 원유개발 전횡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외부적 동력은 중국의 개발논리이다.

## VI. 결론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등 자원을 활용한 대중인기영합주의(petro-populism)’의 모습 하 석유지대(oil rent)를 통한 위에서 아래로의(top-down) 형태의 개발이다(Becker 2013, 54). 그리고 그 채굴개발 경제의 과정 가운데 원주민 등 지역민들에 대한 상의 등 적극적 배려보다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콰도르 현 좌파정부가 등장하게 된 동력이자 기반은 신자유주의 정책하 배제되며, 배척당했던 원주민들이었다고 밝히며, 그네들의 사회운동을 통해 현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 준 과정을 본문에 전개했다. 특히 본 논문은 개발의 정치경제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에콰도르 등 중남미국가들은 지하자원이 개발의 주 요원(primary source)이며, 채굴산업 경제행태와 관련한 좌파식 프레임인 신채굴주의(new extractivism)를 소개했다. 그리고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하 진행되고 있는 신채굴주의 경제적 행태, 즉 포용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이 레토릭한 수준에 불과함을 적어도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개발 정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에콰도르 등 남미 아마존지역 개발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꼬레아 정부가 2008년 헌법 개정 후 전면내세운 자연과 원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Yasuni ITT지역에 대한 채굴 확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면모가 확인되었다. 즉 좌파 정부 하 개발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중적(dual identity) 모습인 것이다. 앞서 서

론에서 잠시 언급한바 있는 에스끄리바노(Escribano 2013)는 에콰도르 에너지 정책의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이율배반적 상황 가운데, 중국의 에너지관련 투자가 자원민족주의를 제한하고, 실용주의적 행태의 자원 활용의 동인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에콰도르 정부의 정치적으로 내재화된 '토양'가운데 채굴개발 경제의 패턴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현 좌파 정권의 역설적 개발의 정치경제 모습을 야기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현 시대의 정신(zeitgeist)이자 방향성(orientation)에, 에콰도르 현 정부의 아마존지역 개발에 얽힌 문맥을 통해 개발의 논리가 지극히 자본주의 주도형(capitalism-oriented)의 양상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후속연구는 김기현(2011)이 연구한바 있는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개발의 비교연구 등, 아마존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타 국가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특히 중국이라는 외부적 행위자의 개입이 남미 아마존 지역(에너지)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국가들은 어떠한 고민과 대응(response)하는지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병근(2015),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 환경법과 정책, Vol. 14, pp. 145-169.
- 김기현(2011),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석유개발과 환경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22, No. 1, pp. 27-61.
- \_\_\_\_\_(2013), 「아마존 서부지역의 석유개발에서 환경과 원주민 문제」, 『트랜스라틴: 라틴아메리카환경』, No. 26.
- 김달관(2011), 「에콰도르의 탈식민지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Vol. 13, No. 2, pp. 1-31.
- \_\_\_\_\_(2012),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23, No. 2, pp. 175-195.
- 김정수(2013), “20년간 멈추지 않는 아마존의 ‘검은 눈물’”, 한겨레신문,

- <http://ecotopia.hani.co.kr/178221>.
- 원영수(2015), “에콰도르 반정부세력의 공세와 좌파의 분열: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는 위기 아닌 조정국면”,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765>.
- 외교통상부(2013), “에콰도르 야수니 국립공원 개발확정 동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09&tableName=TYPE\\_KORBOARD&seqno=7338](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09&tableName=TYPE_KORBOARD&seqno=7338).
- 정상률(2011), 「석유시대의 정치경제와 아랍 민주주의」, 中東研究, Vol. 30, No. 3, pp. 83-115.
- 조영현, 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vol. 31, No. 2, pp. 127-160.
- 조한승(2015), 「중남미 지역기구 정치의 역동성: OAS, ALBA, UNASUR, CELAC」, 국제지역연구, Vol. 19, No. 2, pp. 37-60.
- Acuna, Roger Merino(2011), “What is ‘Post’ in Post-Neoliberal Economic Policy? Extractive Industry Dependence and Indigenous Land Rights in Bolivia and Ecuador”,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65138\\_What\\_is\\_%27Post%27\\_in\\_Post-Neoliberal\\_Economic\\_Policy\\_Extractive\\_Industry\\_Dependence\\_and\\_Indigenous\\_Land\\_Rights\\_in\\_Bolivia\\_and\\_Ecuador](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65138_What_is_%27Post%27_in_Post-Neoliberal_Economic_Policy_Extractive_Industry_Dependence_and_Indigenous_Land_Rights_in_Bolivia_and_Ecuador).
- Alier, Martinez(2007), “Keep Oil in the Ground: Yasuni in Ecuado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2, pp. 4227-4228, <http://www.epw.in/commentary/keep-oil-ground-yasuni-ecuador.html>.
- Atlasmedia, <http://atlas.media.mit.edu/en/profile/country/ecu/>.
- Becker, Marc(2016), “The Correa Coup”, *Latin American Perspective*, Vol. 43, No. 1, pp. 71-92.
- \_\_\_\_\_(2013), “The Stormy Relations between Rafael Correa and Social Movements in Ecuador”, *Latin American Perspective*, Vol. 40, No. 3, pp. 43-62.
- Escribano, Gonzalo(2013), “Ecuador’s energy policy mix: development versus conservation and nationalism with Chinese loans”, *Energy Policy*, Vol. 57, pp. 152-159.
- Gallagher, Kevin P. and Margaret Myers(2015), “China-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 Washington: Inter-American Dialogue.
- Grugel, Jean and Pia Riggirozzi(2012), “Post-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Rebuilding

- and Reclaiming the State after Crisis”, *Development and Change*, Vol. 43, No. 1, pp. 1-21.
- Guardian(2013), “Yasuni: Ecuador abandons plan to stave off Amazon drilling”,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aug/16/ecuador-abandons-yasuni-amazon-drilling>.
- Hill, David(2013), “Why Ecuador’s president is misleading the world on Yasuni-ITT”,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andes-to-the-amazon/2013/oct/15/ecuador-president-misleading-yasuni>.
- \_\_\_\_\_(2014), “Ecuador pursued China oil deal while pledging to protect Yasuni, papers show”,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4/feb/19/ecuador-oil-china-yasuni>.
- Leon T., Magdalena(2010), “El ‘buen vivir’: objetivo y camino para otro modelo”, [http://base.socioeco.org/docs/el\\_buen\\_vivir\\_objetivo\\_y\\_camino\\_para\\_otro\\_modelo.pdf](http://base.socioeco.org/docs/el_buen_vivir_objetivo_y_camino_para_otro_modelo.pdf).
- Lindsay, James M(2015), “Can you name the top 10 world news events of 2015?”, <http://www.newsweek.com/can-you-name-top-ten-world-news-events-2015-409346>.
- Martin, Pamela(2011), “Global Governance from the Amazon: Leaving Oil Underground in Yasuni National Park”, Ecuador.
- McMichael, Philip(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Sage Publication.
- Oilwatch, “Oilwatch to Ecuadorian president: Keep oil firms out of Yasuni-ITT”, <http://www.oilwatch.org/en/noticias/622-oilwatch-to-ecuadorian-president-keep-oil-firms-out-of-yasuni-itt>.
- Permanent Mission of Ecuador to the United Nations(2007), “Speech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Excellency Rafael Correa”, [http://www.google.co.kr/url?sa=t&rc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uuJLQ8cLLA\\_hUCHqYKHWtEBqgQFggaMAA&url=http%3A%2F%2Fmdtf.undp.org%2Fdocument%2Fdownload%2F4500&usq=AFQjCNFLWB93l3fcT01LBZ43VtWrOUqrw&sig2=l2ODZx1Gw3g2jmaHGdNZ7A](http://www.google.co.kr/url?sa=t&rc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uuJLQ8cLLA_hUCHqYKHWtEBqgQFggaMAA&url=http%3A%2F%2Fmdtf.undp.org%2Fdocument%2Fdownload%2F4500&usq=AFQjCNFLWB93l3fcT01LBZ43VtWrOUqrw&sig2=l2ODZx1Gw3g2jmaHGdNZ7A).
-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2011), “Republic of Korea”,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Ecuador/english08.html>.
- Ray, Rebecca and Adam Chimienti(2015), “A line in the Equatorial Forests: Chinese

- Investment and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Extractive Industries in Ecuador”, <http://business-humanrights.org/sites/default/files/documents/Ecuador1.pdf>.
- Shiva, Vandana(2012), “Democracia de la Tierra y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Acosta and Matinez(ed.), *La Naturaleza con Derechos: de la Filosofía a la Política*, <http://rosalux.org.ec/attachments/article/254/derechos-naturaleza.pdf>.
- Temper L. and others(2013), “Towards a Post-Oil Civilization: Yasunization and other initiatives to leave fossil fuels in the soil”, [http://www.ejolt.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3/05/130520\\_EJOLT6\\_High2.pdf](http://www.ejolt.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3/05/130520_EJOLT6_High2.pdf).
- Valencia, Alexandra(2013), “Ecuador to open Amazon’s Yasuni basin to oil drilling”, <http://in.reuters.com/article/us-ecuador-oil-idINBRE97E15220130816>.
- Veltmeyer, H.(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Natural Resource Extraction: A New Model or Extractive Imperialism”,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4, No. 1, pp. 79-95.
- “Ecuador signs contracts with to China oil giant for oil exploration in Amazon -Nearly 1 million acres of rainforest at risk- Indigenous people object”, <http://beforeitsnews.com/environment/2016/02/ecuador-signs-contracts-with-to-china-oil-giant-for-oil-exploration-in-amazon-nearly-1-million-acres-of-rainforest-at-risk-indigenous-people-object-2547152.html>.

## 이 태 희

부산외국어대학교  
gwheok@gmail.com

논문투고일: 2016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12일

# Dual Identity of Ecuador: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e paradox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quatorial Amazon

**Taeheok Le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Taeheok(2016), “Dual Identity of Ecuador: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e paradox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quatorial Amaz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73-194.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Amazonian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leftist government in Ecuador,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repeats ‘change and continuity’. Particularly, the beginning of this discourse works together with the colonial period(Michael 2012).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Ecuador, commonly embedded the nature of natural resource-related dependent development. In this historically embedded structural context, the 21st century leftist governments emerged, proclaiming the economic redistribution and political economic inclusiveness for those who were excluded under neo-liberalism. In short, these leftist governments attempt to realize the post-neoliberal by framing the new extractivism. However, it has been identified that Ecuador faces a dual identity concerning its oil extraction policy. In particular, Ecuador declared the Yasuni ITT Initiat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7, subsequently, the current leftist government rejected this approach in 2013. The government then chose China as a ‘exit’ strateg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quatorial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has displayed characteristics of dependency,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is indicates the aspect of paradox of the Equatorial political economy.

**Key words** New Extractivism, Post-neoliberalism, Dual Identity, Yasuni ITT Initiative, Ecuador, China